* 우리의 시스템에서,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그 속 정보를 보고 판단하여 오프라인 고객에게 가공된 정보(추천 등)를 제공하는 것
* 이마트: 아마존고 지향하는 분위기
* 홈플러스:
* 롯데마트:
* 현재 3사가 나아가려는 방향 및 이루려는 목표
* 현재 3사가 오프라인 데이터 어떻게 이용하나

가치제안

q. 물건을 일일이 바코드로 찍는 것보다 사진으로 한번에 찍는 게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나??  
- 같이 사는 물건들 파악  
-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 
- 마케팅에 활용

q. 포스기는 하드웨어인가, 소프트웨어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공하나?  
q. 대형마트(홈플러스)가 기존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나??